

서은 문병란 시인 1주기 추모제 ... 27일 조선대 서석홀

절망의 시대에 맞서
희망을 노래하던 시인
'긴~이별, 긴~슬픔'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에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버린/ 지금은 가슴으로 노릇들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織女에게’ 중에서)

남과 북의 분단을 견우와 직녀로 형상화했던 ‘織女에게’는 조국 분단의 아픔을 절절하게 읊어낸 절창이다. ‘견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브로 남과 북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연인에 비유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織女에게”로 널리 알려진 문병란 시인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이자 남도가 배출한 대표 서정 시인이다. ‘織女에게’는 지난 1987년 가수 김원중 씨가 노래 ‘직녀에게’를 만들어 부르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김원중 씨는 “직녀에게”를 통해 문병란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사의식과 통일에 대한 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1935년 화순에서 태어난 문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3년 대형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순천고, 광주 제일고 교사를 거쳐 1988년 조선대 국문과 교수로 임용돼 2000년까지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졸공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선 저항시와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들을 발표했다.

시낭송·노래공연 등 다채

문예지 ‘모던포엠’ 추모 특집

특히 문 시인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으며 독재정권 시절 민족, 민중,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적잖은 시집들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70년 ‘문병란시집’을 시작으로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5월의 연가’ 26권의 시집을 펴냈다.

서은(瑞恩)문병란 시인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서은“瑞恩”은 서석홀에 은거한다는 뜻으로 고인이 생전에 서석홀 소재 문학연구소에서 말년을 보낸 데서 유래한다).

27일 오후 6시30분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는 노래공연, 추모예제, 시낭송,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추모제는 황일봉 서은문학연구소 이사장의 문병란 시인 약력보고를 시작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도지사의 추도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전 목포대 교수인 허행만 시인과 일본 주(中央)대 히로오카 모리호(廣岡守徳)교수가 회고사를 낭독한다. 허 시인은 문병란 시인과 사제 인연이 있으며, 히로오카 모리호 교수는 일본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과 문병란 문학세계를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저명한 사회학자다. 히로오카 모리호 교수는 지난 5월 광주



를 방문한 서은문병란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공동추모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가수 박문옥의 추모 노래공연과 김준태 시인의 추모시 낭송도 있을 예정이다. 문 시인의 육성을 듣는 추모영상 시청, 고인에 대한 남북교류협회의 추모예제 등도 계획돼 있다.

문 시인의 시를 제자들이 낭송하는 시 낭송회도 펼쳐진다. 김숙희 시인이 ‘불혹의 연가’, 강숙자 시인이 ‘희망가’를 낭송하며, 마지막 추모공연으로 ‘직녀에게’의 가수 김원중이 노래를 부른다.

한편 고인의 1주기를 맞아 문예지 ‘모던포엠’(2016.9)이 문병란 시인을 기리는 추모 특집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모던포엠 초대석’에는 문병란 시인의 대표 시 ‘죽순밭에서’, ‘뚝이 된 날 노래’ 등 9편이 소개돼 있다. 모던포엠 주간인 엄

창섭 가톨릭 관동대학교 명예교수는 ‘시적 변명의 추이(推移)와 따뜻한 서정성-문병란 시인의 투사(投擲)된 해체와 시적 감응’이라는 주제로 고인의 시세계와 생애를 조명했다.

엄 교수는 “정의의 붓끝을 보다 날 푸르게 관주세워 ‘무등산의 등신대, 또는 파수꾼’으로 생존하면서 동일한 시간대와 공간에 몸담았던 어느 시인보다 ‘남도인의 삶’을 순수서정성을 살려 존재의 꽃으로 형상화시켰다”고 평했다.

또한 서은문학연구소 회원들의 추모시와 수필도 수록돼 있다. 이창민, 강춘기, 공옥동, 김경숙 시인 등 24명의 시인들은 고인을 소재로 한 시들을 발표했으며 박인순·이재일 수필가는 각각 산문 ‘서은(瑞恩)의 향기’, ‘먼 길 떠나신 민주 시인’을 소개했다.

‘모던포엠 초대석’에는 문병란 시인의 대표 시 ‘죽순밭에서’, ‘뚝이 된 날 노래’ 등 9편이 소개돼 있다. 모던포엠 주간인 엄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제22호 발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성평등 정책 이슈를 담아낸 ‘젠더 브리프’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 주제는 ‘유럽의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 배우다’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 스웨덴의 일·가정양립정책, 덴마크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특징을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살펴봤다.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다.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간 상호유기적 연계에 노력해 온 덕에 가능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성평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발간하고 있다. 문의 062-670-0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성인공예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중이인형을 만드는 ‘성인공예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예교실은 10월5일부터 11월23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에 마다 열리며 다양한 표정의 다중이인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다중이인형은 가위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다중이를 붙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정겨운 한국인의 모습을 담아낸다. 김유경 공예가가 강사로 참여해 인형 골격을 잡는 기초작업부터 세부적인 다듬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 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재료비는 1인당 5만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예가 창석 김창동 고회전

28일부터 서울 세종미술관
글씨 400여점·병풍 20점 등



구례 출신 서예가 창석 김창동(사진) 선생이 고회를 맞아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서울 세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회갑전 이후 10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전시작들은 지난 10년간 김 선생이 지리산, 태백산, 월출산, 합천 해인사, 인천 장봉도 등 명소 50여곳을 방문해 쓴 글씨 400여점이다. 또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출품한 작품과 금강경, 도덕경, 적벽부, 귀거래사 등 병풍 20점도 선보인다.

김씨는 한학자이자 서예가였던 고종기 문신 한훤당 김광필의 14대 후손이다. 일찍이 광주 송곡 안규동 선생 문하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는 일중 김충현 선생을 사사했다.

10년 전부터 선전이 강화했던 구례 서당에서 기거하는 김씨는 전국 명소

에서 5일씩 머물며 글씨를 쓰고 있다. 약 스무번 등정한 지리산 천왕봉에서는 고당 선생이 지은 시를 썼고 인천 장봉도에

서는 중국 북송시대 명도의 ‘주일우성(秋日偶成)’을 남겼다. 특히 이번 전시를 앞두고 ‘초서천자문’, ‘예서천자문’ 2종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부친이 남긴 “책을 만들든지 글을 내보이지 70살은 돼야 한다”는 유언을 받았다.

또한 재료를 중요시하는 그는 1000만원이 넘는 비루 5개를 비롯해 500만원에 달하는 청나라 먹, 장당 수십만원 상당하는 종이 등을 함께 전시한다. 김씨는 국전 특선 2회, 입선 10회에 올랐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국제서법연맹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의 02-399-11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한·몽 교류 음악회’ 개최

‘국악과 몽고 전통음악의 만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이 한·몽 수교 26주년을 기념,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몽 교류 음악회를 열었다.

사전 초청된 인사를 대상으로 울란바토르 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열린 공연에는 특히 몽골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광주시 초청을 받아 광주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선 몽골 국립마두금합주단 공연에 대한 답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강상구 작곡 ‘하늘을 담은 바다’를 시작으로 ‘민요연곡’, ‘박타랑’ 등 흥겨운 우리국악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몽골 마두금합주단이 몽골의 다채로운 전통음악을 연주했으며 3부 합동공연에서는 한·몽 연주자들이 함께 ‘아리랑’, ‘몽골의 고향’ 등을 공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음악을 몽골에 소개하고 광주시와 울란바토르간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주회는 총3부로 구성됐다. 1부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월급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